

우리 뇌는 충분히 반복되어 정보전달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것에는 저항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이 몸에 익을 때까지는 21일간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의 생체시계가 교정되는 데는 최소한 21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1일은 생각이 대뇌 피질에서 뇌간까지 내려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생각이 뇌간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심장이 시키지 않아도 뛰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행하게 된다.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 습관을 먼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21일 법칙은 무엇이든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법칙으로 승리제단(勝利祭壇) 뿐 아니라 예일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다. 동양에서 내려오는 '21일간 소원을 빌며 자기 도장을 찍으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좋은 기운만을 불러들인다.'는 일종의 전통과 유사하다.

승리제단에 처음 나오면 21일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한다. 승리제단은 매일 예배를 드린다. 6,000년 묵은 죄의 때를 매일 조금씩 벗겨내는 것이다. 의심이 들어도 꼭 참고 21일을 알아보는 동안 조금씩 고정관념이 깨진다. 인생은 당연히 죽는 것으로 알고 있던 고정관념에 변화가 생긴다. 차츰 영생이 믿어지고 영생이 나에게 실현될 것이



습관을 바꾸는 21일의 법칙

라는 확신이 오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된 육은 죽고 영이 천당에 간다는 영육분리의 고정관념이 점차 영육일체로 납득이 되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무릎을 치며 감탄을 하게 된다. "이 바보가 왜 여태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때부터는 예배시간에 들려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새롭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 나의 가슴에 스며들어 사막 같은 심령에 생수가 되어 흐르게 되는 것이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오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입에서는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나를 승리제단으로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먼저 나온 신앙의 형제들이 너무나 고맙고 정답게 느껴진다.

이후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고 빨리 이 진리를 전해서 저들도 이 진리에 동참하게 해야겠다는 사명감(使命感)이 불타오른다. 이것이 바로 초심(初心)이다. 처음 승리제단에 나와서 주님을 알고 너무나 감

격했던 그 마음으로 자유율법(自由律法)을 지키는 생활을 하루 24시간, 21일 동안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사고를 벗어나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승리제단에서는 초초로 바라보라고 한다. 바로 견성성불(見性成佛)! 바라봄으로써 부처님(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21일간만 자유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약 5년 동안 밀실에 있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1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일 동안 온전히 자유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어떤 때는 3일 만에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20일째 되는 날 떨어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을 계속하여 마침내 자유율법을 온전히 21일을 지키니 '이겼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Be re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라!

구원의 비밀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 The secret of salvation is to be 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John3:5). Being reborn through the Holy Spirit means becoming God again.

성경에는 쓰여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 The Bible says that, unless one's birth is through water and the Spirit, on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John 3:5).

이것은 만약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의미한다. 마귀의 영적 옥을 뚫고 나와 다시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 This means that unless a human being becomes God, he cannot gain salvation. Without getting out of the spiritual prison of Satan and becoming God again, no one can obtain salvation.

사람은 이전에 하나님이였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사람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겨야 한다.

▶ As he was God previously, man must become God again. Then, he can gain salvation. Therefore, to become God again, one must overcome the Spirit of Death, Satan and the Self-Awareness of "I".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나와 마귀와 사망권세와 싸워야 한다!

▶ Thus, we must struggle against the Spirit of Death, Satan and the Self-Awareness of "I" in order to be re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 ! *

by Alice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죽은자의 영혼이 천당 갈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과연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천당 갈 수 있을까?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말씀도 있다. 말씀이 상반된다는 것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다고 덮어 놓고 믿으면 안 되고 참말과 거짓말을 분별해서 참말만 믿어야 된다.

그렇다면 참말과 거짓말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현실에서 그대로 되어졌으면 참말이고 되어지지 않았으면 거짓말이다. 또한 참말은 이치에 맞고 꾸며낸 말은 이치에 맞을 수가 없다. 이치에 맞으니 현실에서 일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으니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원리이다.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 갈 수 있을까
사람은 헛값으로 죽는다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으로 분별하건데 죽은자는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죽음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자의 영혼이 천당 간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으니 현실에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진 예도 없다. 따라서 그 말은 속임수의 말이고 거짓말이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별해 보자. 과거나 현재에 예수 믿고 안죽은 사람이 없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다. 과거와 현재에 기초한 미래에도 예수 믿고 안 죽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성경에 쓰여있지만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거짓말이 분명하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죽는 것을 보아, 예수의 죄사함이란 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예수라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알지도 못했는데 무슨 죄를 어떻게 사했다는 것인가! 그저 말뿐인 죄사함을 신약성경에 써 놓아서 수많은 인생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을 기쁜 마음으로 죽게끔 죽음을 향한 길을 닦힌 마귀의 전략인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되는 구세주의 새로운 말씀은 무엇인가

천당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기 때문에 천당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은 이치에 맞고, 이치에 맞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

이 있고 또한 이루어진 예도 존재한다. 단, 천당가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사람 속에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 있고 사상이 되는 마귀가 병존하고 있는데 그 마귀라는 영적 존재의 별명이 '죄'이고, 인간 각자의 '나'라는 주체 의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영혼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전부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것조차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인간의 주체 의식의 영을 죽여 없애야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이 주체의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 하나님이 영생을 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죽음의 원인이 인간의 영혼인데 진짜 구세주의 은혜로 그 영을 박멸소탕해야 하나님의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되어 천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 출처: <http://www.victoryaltar.org/ko/>

김만철 선생 탈북스토리

30년 만에 털어놓는 탈북 비화!!!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탈북 식량과 자유만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자

인도네시아의 무인도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기 어렵다면 파푸아뉴기니로 가지 거기도 안 되면 아마존 삼림속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가자
아!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엔진고장 그리고 표류 일본열도에 흘러들어가던 후 극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다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가서



가격 16,000원



김만철 선생은

1987년 1월 김일성 공산정권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열한식구를 몽땅 데리고 배로 탈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북한사람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였다.

탈북 후 교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과 극적인 탈북과정을 강연하면서 강연료로 받은 돈으로 남해에 평화기도원을 세워 운영하였다.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는지 알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다니기도 하였지만 모순 투성이의 성경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더욱 위문만 생겨서 중도에 그만두었다. 승리제단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 교회 다니면서 생겼던 의문을 말씀이 해결할 수 있었다.

윤봉수 신도회장 앞으로는 편지

김만철씨 탈북기는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편의 드라마로 낸 픽션이다. 우리들의 흥금을 울렸고, 많은 감동을 주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자기만의 예고를 벗어 버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인간애가 빛나고 아름다웠다. 러시아 철학자 볼스토티도 인간은 사랑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고 하였다. 독일계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은 삶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천도교에서도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며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고 사랑하라고 한다.

김만철씨가 자유와 행복을 찾아 구사일생으로 남한 땅에 왔는데 남한의 예고이즘이 만연한 장로예수교 사회에서 사기와 유혹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방황한 사실이 정말 안타까웠다. 늦게나마 새로운 길로 지금의 승리제단 영생교에 몸을 담고 있다니 그분의 여성에 안락(安樂)한 인생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는 소중치 않다. Here and Now, 지금의 현재가 귀중하다. 우리는 섬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편집자 주: 윤봉수 신도회장이 지인에게 김만철 탈북기를 드렸는데 그분께서 책을 읽고 위와 같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판매처 : 교보문고, 도서출판 해인 (032-343-9985)